

2009 사회조사(인터넷조사)를 통해 본 청년 자살충동에 관한 연구

임경은¹

¹통계개발원 조사연구실

(2010년 2월 접수, 2010년 5월 채택)

요약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와 함께 우리나라의 자살 관련 연구는 크게 증가하였다. 그 중 청소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 원인과 특성 그리고 예방법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성인 특히 청년층(2·30대)의 자살 관련 연구는 청년층의 자살 증가 추세와 그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원자 표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2009년 인터넷 사회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자살충동경험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고, 이들 요인이 자살충동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주요어: 청년자살, 자살충동, 인터넷사회조사, 로지스틱회귀분석.

1. 서론

1998년 IMF 이후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IMF 국제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당시 우리나라의 전체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8.4명에 달했으며, 남성의 자살률은 26.5명으로 여성 10.3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후 금융 위기를 지나며 감소세에 들어갔던 자살률은 2001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 2008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 사망원인 중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앙일보, 2005.9.29;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08). 특히 지난 10년 간 청년층의 자살률은 높은 비율로 상승하고 있으며, 유명인이나 자신이 모델로 삼고 있던 사람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베르테르효과(Werther effect; 모방자살) 또한 크게 증가하고 하고 있다. 더불어 자살충동을 경험하는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살률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함에 따라 청소년이나 노인 등 연령대에 따른 자살의 원인과 특성 그리고 자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의 자살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발달 특성과 교육, 입시 그리고 가정 환경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노인의 자살은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 관계 등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기환과 전명희, 2000; 이지연 등, 2005; 이희길, 2007). 성인 자살과 관련된 연구로는 김효창 (200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연구에서 성인 자살의 특성을 살펴보고 자살을 개인, 가족환경, 사회환경 등에 기인한 것으로 유형화함으로써 유형에 따른 자살 예방법을 제시하였다. 송재룡 (2008)은 한국사회의 자살을 낳는 사회·문화적 요인의 심각성을 뒤르캤 이론에 입각하여 살펴보았으며, 신성원 (2008)은 우리나라의

¹(302-280) 대전 서구 월평동 282-1, 통계개발원, 조사연구실, 통계사무관. E-mail: kelim@korea.kr

표 2.1. 우리나라의 자살률 추이

명/10만명당

년도	자살률		
	전체	남성	여성
1998	18.4	26.5	10.3
1999	15.0	20.9	9.0
2000	13.6	18.8	8.3
2001	14.4	20.2	8.6
2002	17.9	24.6	11.1
2003	22.6	31.0	14.1
2004	23.7	32.4	14.9
2005	24.7	32.9	16.4
2006	21.8	29.5	14.1
2007	24.8	31.5	18.1
2008	26.0	33.4	18.7

자살 실태를 자세히 소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정승민과 박영주 (2009)가 연예인 등 사회 유명인의 자살 이후 증가하는 일반인의 자살을 고려하여 자살의 원인으로 대중매체의 영향력 주목하였으며, 대중매체가 직·간접적으로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청년층의 자살관련 연구는 청소년이나 노인의 자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년 7월에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터넷을 이용한 사회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30대 청년층의 자살충동경험과 연관성이 있는 요인을 탐색하고, 선택된 요인들이 자살충동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는 개인 정보 노출을 꺼리는 응답자의 조사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민감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 솔직한 답변을 유도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재택 시간의 감소는 전통적인 조사 방법에서의 응답률 저하에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 조사로 인터넷조사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 이용률(20대: 99.7%, 30대: 98.6%, ISIS 2008.6.)이 높고 재택시간이 비교적 짧은 2·30대와 직장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는 인터넷조사의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 (임경은, 2009; Braunsberger 등, 2007).

먼저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살 관련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3장에서는 2·30대 자살충동경험과 연관성 있는 요인들을 탐색한다. 4장에서는 자살충동경험과 연관성 있는 요인들이 자살충동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 5장에서는 결론 및 제언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청년층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한다.

2. 현황

통계청에 의하면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6.0명으로 전체 사망 원인 가운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10만명당 자살률을 나타낸 표 2.1과 그림 2.1이다. 지난 10년 동안의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 IMF 시기에 10만명당 18.4명으로 급격하게 높아졌던 자살률이 점차 줄어들다가 200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의 자살률이 크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2008년 현재 자살률이 10만명당 33.4명으로 여성의 18.7명에 높게 나타나며, 사망원인 중 자살의 순위도 남성의 경우 3위, 여성의 경우 5위로 각각 나타났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의 경우 사망원인 중 자살은 남성에서 2위, 여성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30대의 경우에는 자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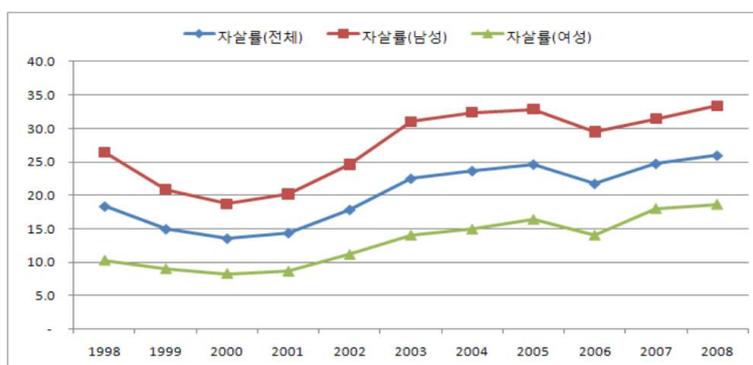


그림 2.1. 우리나라의 자살률 추이

표 2.2. 연령별 자살률 및 사망원인 중 순위(2008)

연령대	전체		남성		여성	
	자살률	순위	자살률	순위	자살률	순위
10~19세	4.6	2	4.9	2	4.4	1
20~29세	22.6	1	22.2	1	23.0	1
30~39세	24.7	1	28.3	1	21.0	1
40~49세	28.4	2	38.1	2	18.4	2
50~59세	32.9	4	50.5	4	15.2	3
60~69세	47.2	5	74.1	4	23.3	5
70~79세	72.0	6	115.0	6	44.0	7
80세 이상	112.9	9	194.4	8	79.7	9
전체	26.0	4	33.4	4	18.7	5

표 2.3. 연령별 자살충동경험비율(%)

	2006년	2008년	2009년
15~19세	10.1	10.4	17.9
20~29세	8.1	6.4	15.2
30~39세	10.5	6.9	16.4
40~49세	12.7	7.7	16.0
50~59세	11.6	6.3	14.1
60세 이상	8.3	7.1	11.4
전체	10.3	7.2	14.8

남·녀 모두 사망원인의 1위, 40~49세의 경우에는 2위로 나타나 청소년 및 청·장년층의 자살로 인한 사망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표 2.2).

이와 더불어 자살충동경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조사에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참여 등 10개 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별 2년 주기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보건 분야에는 지난 1년 동안 자살충동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2006년 당시 해당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 자살충동경험이 있었다는 비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의 10.3%에 달했으며, 2008년 7.2%로 감소했다가 2009년 14.8%로 크게 증가했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표 2.4. 조사방법에 따른 연령별 자살충동경험비율(%)

조사방법	연령대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면접	17.9	15.2	16.4	16.0	14.1	11.4	14.8
인터넷	24.2	26.6	25.6	20.0	16.8	14.3	22.3
χ^2	6.12*	57.36**	33.67**	7.00*	2.55	1.84	113.38**

*: $p < .05$, **: $p < .01$

연령별로 자살충동을 경험한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 대하여 2009년의 자살충동경험 비율이 2008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2008년 대비 각각 8.8%p와 9.5%p로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는 “지난 1년 동안(2008.7.6~2009.7.5)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서의 기간 동안 최진실, 노무현, 마이클잭슨 등 많은 유명인이 자살하는 사건으로 인한 베르테르효과와 국제적 경제 위기로 인한 최악의 청년실업 문제 그리고 개인적 인간관계 및 정신질환(우울증 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자살과 같은 민감한 내용은 표본조사를 통하여 솔직한 답변을 유도하기 쉽지 않다. 즉, 조사원이 진행하는 면접조사에서 자살충동경험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 자살충동경험 비율은 조사 결과보다 더욱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09년 사회조사는 기존의 면접조사와 동시에 인터넷 자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조사를 시행하였다. 다음은 두 조사 방법에 따른 연령별 자살충동경험비율이다.

표 2.4에서의 결과와 같이 조사 방법에 따른 자살충동경험 비율에는 비교적 큰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2.30대의 경우에는 인터넷조사와 면접조사의 비율 차이가 각각 11.4%p와 9.2%p로 매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조사원이 있는 면접조사에 비해 자기기입방식으로 진행되는 인터넷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기피하거나 민감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더욱 솔직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시행된 사회조사 중 인터넷으로 이루어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30대의 자살충동경험과 연관성 있는 요인을 탐색하고, 연관성이 밝혀진 요인들과 자살충동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삶의 질 부문(주관적건강평가, 스트레스인식, 가족관계만족도)을 매개로 하는 로지스틱회귀모형을 고려하여 2.30대의 자살충동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조사로 2009년 사회조사에 참여한 2.30대 응답자들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그리고 삶의 질 만족도와 관련된 4개 부문에 대하여 자살충동경험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고려되는 주요 요인들이 삶의 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삶의 질 부문을 매개변수로 하는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4. 분석결과

4.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009년 7월 진행된 인터넷조사는 응답자원자 7,619명 중 1,547가구를 최종 인터넷 표본가구로 확정된 후 기본사항 7문항, 문화와 여가 13문항, 소득과 소비 4문항, 사회참여 11문항, 삶의 질 만족도 16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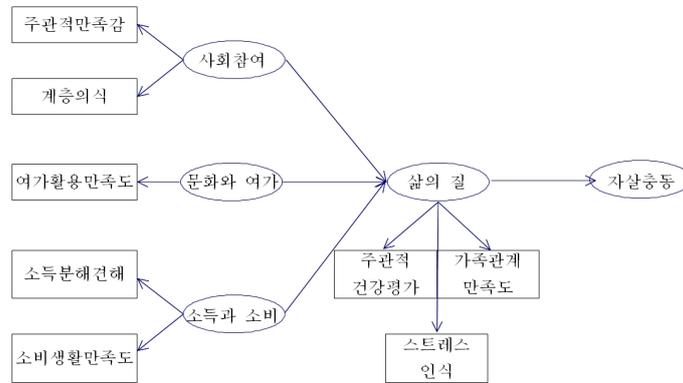


그림 3.1. 연구모형

표 4.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 및 개인 특성		항목	빈도	퍼센트
가구 관련사항	거처의 종류	단독주택	251	18.7
		아파트	801	59.7
		연립주택	84	6.3
		다세대주택	161	12.0
		기타	44	3.3
	점유형태	자기집	745	55.6
		전세	365	27.2
		보증부월세	97	7.2
		월세(사글세)	87	6.5
		무상	47	3.5
개인 관련사항	성별	남성	631	47.1
		여성	710	52.9
	연령대	20대	719	53.6
		30대	622	46.4
	가주주와의 관계	가주주	511	38.1
		가주주외	830	61.9
	교육정도	초졸이하	8	0.6
		중졸	11	0.8
		고졸	487	36.3
	혼인상태	대졸이상	835	62.3
미혼		706	52.6	
유배우		624	46.5	
	무배우	11	0.8	
합계			1,341	100.0

관리사항 6문항 등 총 57개의 조사항목을 대상으로 15일 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전체 조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수는 2,903명으로 확정된 인터넷 표본가구에서 평균 1.88명의 가구원이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 중 연령대가 2·30대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4.1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59.7%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

표 4.2. 자살충동 관련 요인

부문	요인	문항
사회참여	주관적만족감	귀하는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계층의식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와 여가	여가활용만족도	귀하는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소득과 소비	소득만족도	귀하는 본인의 소득(근로, 사업, 재산 및 기타 소득 모두 포함)에 만족하십니까?
	소득분배견해	현재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빈부격차 등)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소비생활만족도	귀하는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삶의 질 만족도	주관적건강평가	귀하의 건강은 대체로 어떠하십니까?
	스트레스인식	귀하는 지난 2주 동안 (2009.6.22~2009.7.5)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꼈습니까?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에 있어 가족생활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표 4.3. 자살충동 관련 요인 특성 I

부문	요인	평균	표준편차
사회참여	주관적만족감	2.82	0.98
문화와 여가	여가생활만족도	3.03	0.99
소득과 소비	소득만족도	2.56	1.05
	소득분배견해	1.96	0.88
	소비생활만족도	2.73	0.96
삶의 질	주관적건강평가	3.40	0.89
	스트레스인식	2.69	0.81
	가족관계 만족도	3.59	0.97

으며, 자기집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5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47.1%, 여성 52.9%이며, 20대가 53.6%, 30대가 46.4%로 각각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38.1%는 가구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 이상인 경우가 98.6% 나타나 인터넷 사회조사에 참여한 2,300대의 대부분이 고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있어서는 미혼인 경우가 52.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4.2. 자살충동 관련 요인

인터넷을 이용한 2009년 사회조사에서는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삶의 질 만족도 부문이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부문별로 자살충동과 관련 있는 문항을 탐색하고 자살충동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삶의 질을 매개변수로 하는 경로모형을 수립하고자 한다. 먼저 표 4.2는 각 부문별 자살충동 관련 요인이다.

고려하는 10개 문항 중 계층의식은 6개 범주(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로 조사되었으며, 스트레스인식은 4점(①거의 느끼지 않았다, ②조금 느낀 편이다, ③많이 느낀 편이다, ④매우 많이 느낀다), 나머지 문항은 5점(①매우 불만족, ②약간 불만족, ③보통, ④약간 만족, ⑤매우 만족) 리커트 척도(Likert scales)를 이용하여 조사되었다. 각 문항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4.3과 4.4와 같다.

표 4.4. 자살충동 관련 요인 특성 II

계층의식	빈도	퍼센트
상상	8	0.60
상하	23	1.72
중상	328	24.46
중하	614	45.79
하상	272	20.28
하하	96	7.16

표 4.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충동의 차이

가구 및 개인 특성	항목	자살충동		카이제곱	
		있다	없다		
가구관련사항	거처의 종류	단독주택	55 (22.45)	190 (77.55)	4.299
		아파트	203 (25.83)	583 (74.17)	
		연립주택	24 (29.27)	58 (70.73)	
		다세대주택	38 (24.20)	119 (75.80)	
	점유형태	기타	15 (35.71)	27 (64.29)	6.626
		자기집	173 (23.57)	561 (76.43)	
		전세	101 (28.29)	256 (71.71)	
		보증부월세	28 (29.79)	66 (70.21)	
		월세(사글세)	25 (30.86)	56 (69.14)	
		무상	8 (17.39)	38 (82.61)	
개인관련사항	성별	남성	128 (20.75)	489 (79.25)	14.043**
		여성	207 (29.78)	488 (70.22)	
	연령대	20대	185 (26.17)	522 (73.83)	0.323
		30대	150 (24.79)	455 (75.21)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143 (28.89)	352 (71.11)	4.707*
		가구주외	192 (23.50)	625 (76.50)	
	교육정도	고졸	126 (25.93)	360 (74.07)	0.063
		대졸이상	209 (25.30)	617 (74.70)	
혼인상태	미혼	193 (27.61)	506 (72.39)	3.395	
	유배우	142 (23.16)	471 (76.84)		

*: $p < .05$, **: $p < .01$

4.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충동의 차이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자살충동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카이제곱검정)을 수행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중졸 이하인 경우(19명; 1.4%)와 무배우(11명; .8%)인 경우(중졸이하에 무배우인 경우 1명)는 표본수가 매우 작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분석 결과, 가구관련사항에 따른 자살충동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개인특성 중 성별과 가구주여부에 따른 자살충동에 통계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의 경우, 여성 중 자살충동경험이 있는 비율이 29.78%로 남성 20.75%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 2.1과 2.2의 성별 자살률과 상반된 것으로, 여성의 자살충동은 남성에 비해 높은 반면 실제 자살률은 남성이 더 높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이 자살충동을 실행에 옮기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 더 높으며, 남성들의 자살 시도가 실제 죽음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표 4.6.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와 자살충동과의 관계

자살충동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남성가구주	남성비가구주	여성가구주	여성비가구주
있다	79(22.90)	54(18.88)	70(42.17)	147(27.02)
없다	266(77.10)	232(81.12)	96(57.83)	397(72.98)
전체	345(100.0)	286(100.0)	166(100.0)	544(100.0)
카이제곱	32.022**			

*: $p < .05$, **: $p < .01$ 표 4.7. 주요 요인과 자살충동과의 관계 I(t -검정)

부문	요인	자살충동	평균	표준편차	t
사회참여	주관적만족감	없다	2.94	0.94	12.66**
		있다	2.40	1.00	
문화와 여가	여가생활만족도	없다	3.13	0.96	10.84**
		있다	2.67	1.01	
소득과 소비	소득만족도	없다	2.64	1.03	6.36**
		있다	2.27	1.06	
	소득분배견해	없다	2.03	0.88	8.68**
		있다	1.71	0.82	
	소비생활만족도	없다	2.83	0.92	10.19**
		있다	2.40	1.02	
삶의 질	주관적건강평가	없다	3.47	0.87	7.99**
		있다	3.15	0.91	
	스트레스인식	없다	2.55	0.77	-18.51**
		있다	3.19	0.76	
	가족관계만족도	없다	3.72	0.91	13.73**
		있다	3.14	1.05	

*: $p < .05$, **: $p < .01$

한 2·30대의 가구주인 경우에 자살충동경험은 28.89%로 가구주가 아닌 경우 23.50%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 외 20대와 30대 사이에는 자살충동경험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고졸과 대졸자 이상 사이에도 유의미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혼인 상태의 경우 미혼인 경우에 자살충동을 경험한 비율이 27.61%로 유배우인 경우 23.16%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표 4.5).

표 4.6은 성별 가구주 여부에 따른 자살충동경험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이다.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자살충동을 경험한 비율이 42.17%로 다른 경우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주가 아닌 남성의 자살충동경험률은 18.8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비가구주인 여성의 자살충동경험 비율이 27.02%로 가구주인 남성 22.9%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주와의 관계보다 성별에 따른 자살충동경험의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4. 주요 요인들과 자살충동과의 관계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삶의 질 만족도 부문 내 자살충동과 관련 있는 주요 요인은 표 4.2과 같다. 본 절에서는 주요 요인들과 자살충동과의 연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독립표본 t -검정과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4.8. 계층의식과 자살충동과의 관계(교차분석)

		계층의식					카이제곱
		상	중상	중하	하상	하하	
자살 충동	있다	6 (19.35)	60 (18.29)	150 (24.43)	92 (33.82)	42 (43.75)	35.905**
	없다	25 (80.65)	268 (81.71)	464 (75.57)	180 (66.18)	54 (56.25)	
전체		31 (100.0)	328 (100.0)	614 (100.0)	272 (100.0)	96 (100.0)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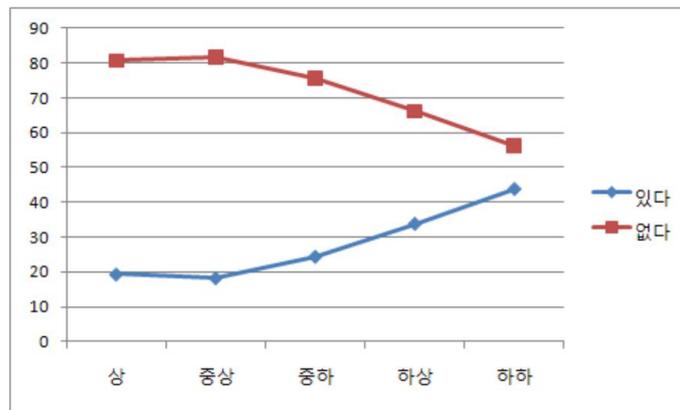


그림 4.1. 계층의식에 따른 자살충동경험

표 4.7을 살펴보면 자살충동을 느낀 경험이 있는 경우에 주관적만족감에서의 만족도는 2.40으로, 자살충동경험이 없는 경우 2.94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으며($p < .0001$), 여가활동만족도 또한 자살충동경험이 있는 경우의 만족도가 2.67로 그렇지 않은 경우 3.13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p < .0001$). 소득과 소비 부문에서의 만족도 또한 자살충동경험이 있는 경우에 전반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스트레스인식과 가족관계만족도에서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경우에는 자살충동경험을 더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족관계만족도의 경우에는 자살충동경험이 없는 경우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의 계층의식의 경우에 “상상”이라고 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8명(0.6%)으로 다른 범주에 비해 매우 적은 빈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상상”과 “상하”를 통합하여 “상”으로 분류한 후 분석에 이용하도록 한다. 자살충동과 계층의식 사이의 연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계층의식이 상 또는 중상인 경우의 자살충동경험 비율이 각각 19.35%와 18.29%인데 반해, 하하인 경우의 자살충동경험 비율은 43.75%로 매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자살충동경험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카이제곱값 = 35.905).

4.5.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살원인에 대해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진행한 최원기 (2004)는 스트레스와 가족 내 갈등을 국내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주원인으로 주목하였으며, 박지인 (2009)의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입시스트레스가 고

표 4.9.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

	주관적건강평가 ($R^2 = .45$)			스트레스인식 ($R^2 = .35$)			가족관계만족도 ($R^2 = .42$)		
	B	S.E.	t	B	S.E.	t	B	S.E.	t
(상수)	2.47	0.18	13.49**	4.22	0.18	22.98**	2.57	0.21	12.02**
주관적만족감	0.23	0.03	7.15**	-0.16	0.03	-4.98**	0.27	0.04	7.38**
중상	-0.01	0.14	-0.05	-0.33	0.14	-2.36*	0.05	0.17	0.28
중하	-0.13	0.14	-0.93	-0.46	0.14	-3.22**	0.00	0.17	-0.02
하상	-0.12	0.15	-0.83	-0.43	0.15	-2.90**	0.02	0.17	0.09
하하	-0.27	0.16	-1.66	-0.38	0.16	-2.31*	-0.29	0.19	-1.54
여가생활만족	0.13	0.02	5.41**	-0.12	0.02	-4.82**	0.08	0.03	2.65**
소득분배견해	0.02	0.03	0.80	-0.02	0.03	-0.60	-0.03	0.03	-1.12
소비생활만족	0.03	0.03	1.06	-0.04	0.03	-1.27	0.09	0.04	2.34*
남성비가구주	0.19	0.06	3.18**	-0.23	0.06	-3.85**	-0.15	0.07	-2.08*
여성가구주	-0.14	0.07	-1.91*	0.10	0.07	1.36	-0.25	0.08	-3.01**
여성비가구주	-0.04	0.05	-0.81	-0.14	0.05	-2.74**	-0.13	0.06	-2.19*

*: $p < .05$, **: $p < .01$

등학생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가족 기능을 매개변수로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가족 기능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증명된 바 있으며, 이는 비단 청소년에 한정된 부분으로 볼 수 없다. 이희길 (2007)은 노인 자살과 관련된 정책보고서에서 노인 자살률의 증가는 가족해체와 큰 연관관계가 있음을 지목하였다. 그러나 청년층에 대한 자살 원인 관련 연구는 전반적으로 미진한 상태이며, 특히 가족 기능이나 만족도 등을 자살 원인으로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살충동 관련 요인들 중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들이 다른 요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히고 이를 매개로 하는 자살충동 관련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그리고 성별 가구주 여부 등을 고려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9에서 추정된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기반으로 독립변수가 삶의 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주관적건강평가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 주관적만족감의 회귀계수가 .23이므로 주관적만족감이 “1” 증가하면 주관적건강평가는 “.2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생활만족도의 경우에는 회귀계수가 .13으로 나타났다. 남성 비가구주인 경우의 회귀계수는 .19, 여성 가구주의 경우에는 -.14로 각각 나타나 다른 성별의 가구주 여부에 비해 남성 비가구주의 주관적건강평가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가구주의 경우에는 주관적건강평가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인식의 경우에는 주관적만족감(-.16)과 여가생활만족감(-.12)이 높고 성별에 관계없이 비가구주의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층의식이 상인 경우에 비해 계층의식이 낮은 경우의 스트레스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만족도의 경우에는 주관적만족감($B = .27$), 여가생활만족감($B = .08$), 소비생활만족감($B = .09$)이 높은 경우에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보다 여성인 경우(여성가구주: $B = -.25$; 여성비가구주: $B = -.13$)에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가구주의 경우에는 남성 가구주에 비해 가족관계만족도가 .2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계층의식이 스트레스인식에만 유독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로 미루어 계층의식이 주관적인 건강평가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형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그리고 성별 가구주 여부 등의 독립변수들이 삶의 질에 유의미

표 4.10. 자살충동경험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삶의 질 제외)

	B	S.E.	Wald	Exp(B)
주관적만족	-0.24	0.10	5.94*	0.79
계층의식			14.87**	
중상(=1) 상(=0)	0.31	0.53	0.35	1.37
중하(=1) 상(=0)	0.54	0.50	1.17	1.72
하상(=1) 상(=0)	0.84	0.50	2.77*	2.31
하하(=1) 상(=0)	1.15	0.54	4.63*	3.17
여가생활만족	-0.18	0.07	6.51**	0.83
소득분배견해	-0.10	0.08	1.46	0.91
소비생활만족	0.11	0.10	1.08	1.11
성별과가구주			27.51**	
남성비가구주(=1)	-0.27	0.21	1.75	0.76
남성가구주(=0)				
여성가구주(=1)	0.85	0.21	16.41**	2.35
남성가구주(=0)				
여성비가구주(=1)	0.25	0.17	2.35	1.29
남성가구주(=0)				
상수	-1.60	0.40	15.86**	0.20

*: $p < .05$, **: $p < .01$

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자살충동경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삶의 질 부분을 매개요인으로 하는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살펴보자.

4.6.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먼저 삶의 질 부분을 제외한 자살충동 관련 주요 요인들이 자살충동경험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은 회귀분석의 특수한 형태로 종속변수가 연속형이 아닌 경우에 이용된다. 판별분석과는 달리 변수들이 다변량정규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가정을 만족할 필요가 없으므로 독립변수에 명목형 또는 서열형 변수가 포함된 경우 더 좋은 예측치를 얻을 수 있다. 로지스틱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logit}(p_i) = \log\left(\frac{p_i}{1-p_i}\right) = \beta_0 + \beta_j x_{ji}$$

이고,

$$p_i = E\left(\frac{Y}{n} \mid x_i\right), \quad Y = \begin{cases} 1, & \text{자살충동경험 있음,} \\ 0, & \text{자살충동경험 없음,} \end{cases} \quad i = 1, \dots, n(\text{표본수}), \quad j = 1, \dots, k(\text{독립변수수})$$

이다.

이 모형에서 독립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오즈비(odds ratio)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된다.

$$\text{Odds ratio} = \exp(\beta_j), \quad j = 1, 2, \dots, k.$$

표 4.10에 의하면, 소득분배견해와 소비생활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들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계수와 오즈비를 살펴보면 각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자살충동을 경험할 확률의 변화를 추

표 4.11. 자살충동경험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삶의 질 포함)

	B	S.E.	Wald	Exp(B)
주관적만족	-0.15	0.11	1.87	0.86
계층의식			2.57	
중상(=1) 상(=0)	-0.20	0.49	0.16	0.82
중하(=1) 상(=0)	-0.11	0.48	0.05	0.90
하상(=1) 상(=0)	0.05	0.49	0.01	1.05
하하(=1) 상(=0)	0.22	0.53	0.18	1.25
여가생활만족	-0.20	0.08	6.32**	0.82
소득분배견해	-0.22	0.09	5.80**	0.81
소비생활만족	0.11	0.11	1.04	1.12
주관적건강평가	-0.20	0.08	5.71**	0.82
스트레스인식	0.68	0.07	94.09**	1.97
가족관계만족	-0.32	0.07	19.26**	0.72
성별과가구주			16.10**	
남성비가구주(=1) 남성가구주(=0)	-0.13	0.21	0.38	0.88
여성가구주(=1) 남성가구주(=0)	0.74	0.22	11.06**	2.10
여성비가구주(=1) 남성가구주(=0)	0.26	0.17	2.22	1.29
상수	-1.60	0.40	15.86	0.20

*: $p < .05$, **: $p < .01$

정할 수 있다. 주관적만족도의 회귀계수는 $-.24$ 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자살충동을 경험할 확률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관적만족도가 “1” 높아지면 자살충동을 경험할 확률은 .79배로 낮아진다. 계층의식에 대한 오즈비를 살펴보면, 계층의식이 상인 경우에 비해 전반적으로 자살충동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며, 계층의식이 하상일 경우에는 상인 경우에 비해 2.31배, 하하일 경우에는 3.17배나 자살충동을 경험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자살충동경험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오즈비 = .83), 남성 가구주에 비해 여성 가구주가 자살충동을 경험할 확률이 2.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은 삶의 질을 포함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4.11에 의하면, 여가생활만족, 소득분배견해, 성별과 가구주 그리고 삶의 질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계수와 오즈비를 살펴보면,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오즈비 = .82)가 높고 소득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오즈비 = .81)고 생각할수록 자살충동을 경험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가구주에 비해 여성 가구주가 자살충동을 경험할 확률은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만족도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주관적건강평가가 높고(오즈비 = .88)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오즈비 = 1.97),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오즈비 = .72) 자살충동을 경험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트레스인식 정도가 “1” 높아지면 자살충동을 경험할 확률이 1.9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가 자살충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자살충동경험에 대한 사회참여(주관적인 만족도와 계층의식)는 직접 효과는 있으나 삶의 질을 매개로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가구주 여부와 문화와 여가 그리고 소득과 소비 부문은 삶의 질을 매개로하는 직·간접 효과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사춘기라는 성장기적 발달 상황과 심한 입시 경쟁이라는 현실 속에서 충동적으로 나타나는 청소년기의 자살이나, 질병과 외로움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을 원인으로 하는 노인의 자살은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들의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도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한 나라의 경제적 기반이며 역동적으로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청년층의 자살은 그 심각성에 비해 크게 주목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청소년이나 노인의 자살 문제와 더불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청년층의 자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이며, 나아가 이들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야 할 때이다. 한 국가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의 자살은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위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시기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살의 징후라고 할 수 있는 자살충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지역 또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조사결과를 이용한 본 연구는 청년층의 자살충동에 대한 주요 요인을 탐색하고 그 영향력의 정도를 밝힘으로써, 장기적으로 청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터넷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편한 시간에 자유롭게 설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조사원 직접 조사를 진행하는 기존의 조사 방식에 비해 기피 문항에 대한 응답을 좀 더 솔직하게 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인터넷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한 본 연구의 결과가 현재 우리나라의 2·30대 청년층이 안고 있는 사회·경제적 만족 정도와 자살충동경험과의 관계를 보다 현실에 가깝게 나타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남준, 백영민 (2004). 대안적 여론조사의 표본편과 문제점과 가중치를 사용한 보정방법: 성향점수 가중과 반복 비례 가중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41**, 43-78.
- 김기환, 전명희 (2000). 청소년 자살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9**, 127-152.
- 김효창 (2006). 성인자살의 특성과 자살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 15-19.
- 박지인 (2009). <입시스트레스가 고등학생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가족기능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신성원 (2008). 우리나라의 자살 실태분석, <한국컨텐츠학회논문지>, **8**, 190-196.
- 송재룡 (2008). 한국사회의 자살과 뒤르케임의 자살론: 가족주의습속과 관련하여, <사회이론>, **34**, 123-164.
- 이지연, 김효창, 현명호 (2005). 스트레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청소년 자살 생각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 375-394.
- 이희길 (2007). <노인자살 문제에 대한 정책 보고서>, 통계개발원, 사회통계실.
- 임경은 (2009). <인터넷조사와 가구방문조사 간 데이터 품질 비교-사회조사를 대상으로->, 통계개발원 2009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 정성석, 이기훈 (2008). 2단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직무만족도와 이직행동에 관한 연구-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통계학회논문집>, **15**, 859-873.
- 정승민, 박영주 (2009). 자살보도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조건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8**, 153-182.
- 최원기 (2004). 청소년 자살의 사회구조적 원인 연구, <사회복지정책>, **18**, 5-30.
- Braunsberger, K., Hans, W. and Roger, G. (2007). A comparison of reliability between telephone and web-based survey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0**, 758-764.

A Study on the Suicidal Ideation of Young Adults Based on the 2009 Internet Society Survey

Kyung Eun Lim¹

¹Methodology Division,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Received February 2010; accepted May 2010)

Abstract

Suicide is a serious social problem in Korean and suicide-related research on adolescents and the elderly has increased. However suicide-related studies of young adults are limited despite the increased trend of youth suicide and its ripple effect. This study, examines factors associated with the suicidal ideation of young adul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2009 Internet Society Survey that demonstrate the impact of suicide.

Keywords: Young suicide, suicidal ideation, Internet Society Survey, logistic regression model.

¹Deputy Director, Methodology Division,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Daejeon Narakeyum 282-1 Wolpyeong-dong, Seo-gu, Daejeon 302-280, Korea. E-mail: kelim@korea.kr